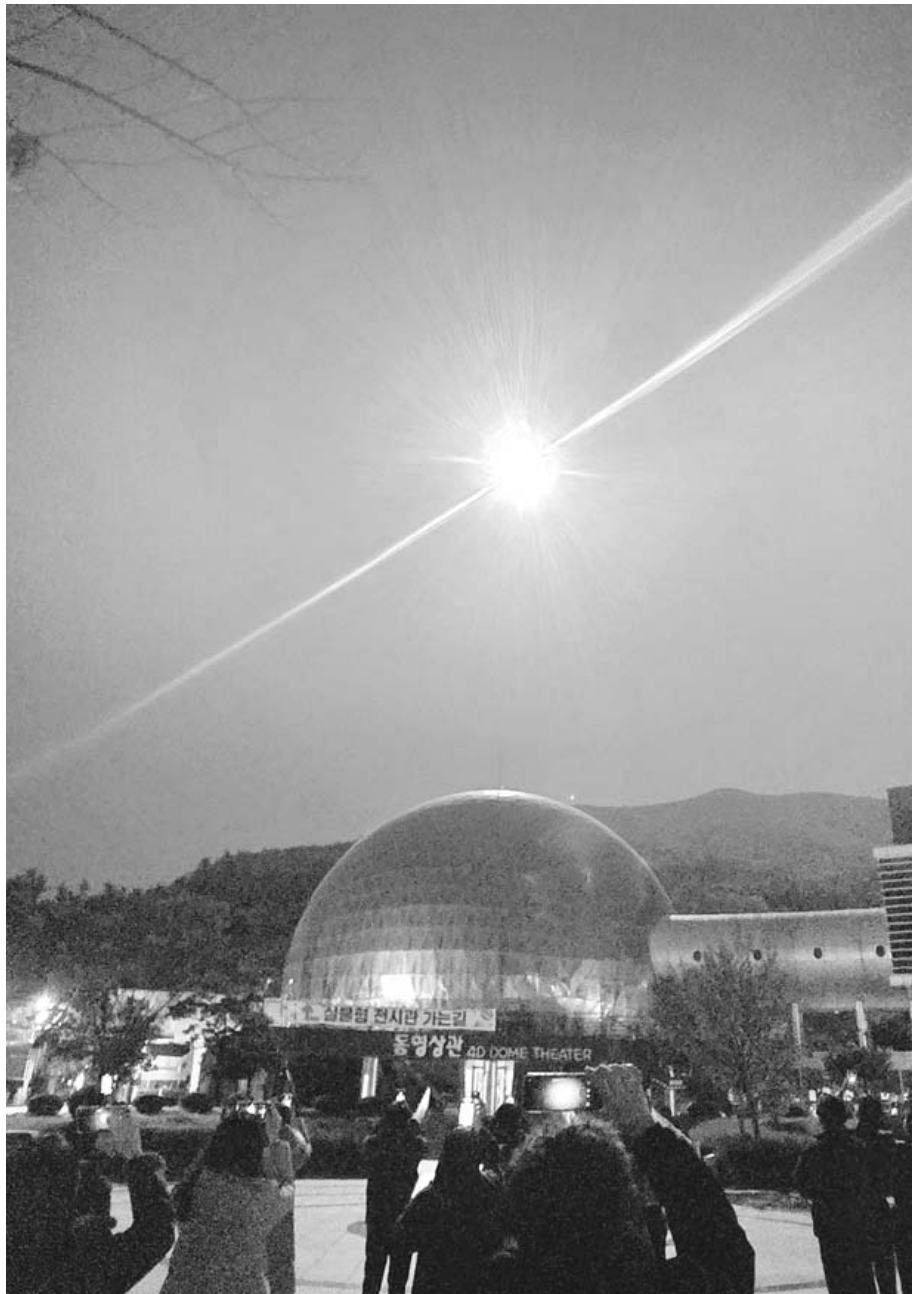


걱정·우려 딛고 ‘날아오른 별’ 장관 연출…일제히 환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진 27일 오전 1시13분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관광객과 관계자들이 성공으로 솟아오르는 누리호를 바라보고 있다. /서형우 기자

“차세대중형위성 3호 기능 정상 작동”

부탑재위성 12기 중 5기 교신 성공

우주항공청은 27일 새벽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탑재위성 12기 중 5기는 최초 교신에 성공했으며, 7기도 교신을 계속해 시도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이날 오전 1시55분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이어 오전 2시48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 본체 구성품 기능을 확인했으며 대전 항우연 지상국 등과 추가 교신을 통해 위성 세부 상태 정보를 내려받고 정밀 점검을 수행한다.

항우 2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준비를 수행하고, 1년간 태양 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며 우주과학 임무 활동에 들어간다.

부탑재위성 중 에트리넷(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잭(JACK)-3·잭-4(코스모웍스), 인하로넷(인하대), K-히어로(한국과학기술원) 등 5기는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나머지 7기 중 일부는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고, 교신하지 못한 위성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가 교신을 시도한다. /연합뉴스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발사 1시간 전부터 긴장감 고조

‘센서 이상·발사 연기’에 장탄식

테드라인 1분 앞두고 극적 이륙

“떨어지기만 하던 별이 날아 오를 것 같은 장관이 었죠.”

누리호 4차 발사를 약 1시간 앞둔 27일 0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는 긴장감이 팽돌았다.

중계 화면을 주시하던 프레스센터 내 관계자들은 고온저압탱크 충전 완료, 산화제탱크 충전 완료, 발사체 기립 장치 철수 완료 등 발사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 발사 시각인 오전 12시55분을 10분 앞두고 ‘발사자동운용(PLO·Pre Launch Operation)’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공지가 없자 일부 관계자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다.

PLO 시스템은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이게 가동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프레스센터 내에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에 이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행히 압력은 정상이고 센서만 이상이어서 발사 시각은 당초 계획보다 18분 정도 늦은 오전 1시13분으로 변경됐다. 연기된 발사 시간이 ‘가능 시한’을 1분만 앞둔 시점인 만큼 “다른 이상이 있어선 안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우려 속에서 오전 12시55분께 발사 전 준비점검 완료에 이어, 오전 1시3분께 PLO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방송이 나오자 걱정스러웠던 장내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준비 과정에서 부품 등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PLO 시스템이 가동을 멈추는 만큼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긴장감이 고조됐던 10분이 지난 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프레스센터 내부에 있던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일제히 건물 밖으로 나가 산등성이 너머 발사장 방향을 주시했다.

오전 1시13분께 지축이 울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

이 산등성이 너머에서 울려 퍼졌고 수초 만에 누리호는 붉은색 빛깔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 올랐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야말로 장관”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

이날 누리호 4차 발사는 역대 최초로 야간에 진행됐다. 오로라 자기장 계측이 목표인 주탑재 위성의 계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항공우주연구원의 설명이다.

누리호가 시야 밖으로 사라지자 프레스센터로 돌아온 관계자 등은 분리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송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며 최종 성공을 기원했다. 발사 후 약 18분 만인 오전 1시31분께 누리호가 모든 비행을 마쳤다고 공식 발표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하는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금지사 “고흥, 뉴 스페이스 시대 전초기지 우뚝”

“제2우주센터 고흥 유치 청신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고흥-봉래 4차로 확장 등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도민과 함께 뜨겁게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지켜본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밤하늘을 수놓으며 협차게 비상하는 누리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며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발사는 누리호의 검증에 넘어 민간 주도 전환으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우리나라 역대 최대 13기의 위성을 탑재하고, 사상 최초 야간 발사에 성공했다”며 “동일한 기종의 발사체를 반복해서 발사하면서 우주 기술에 대한 신뢰와 실전 능력을 온 세계에 떨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무엇보다 고흥이 우리나라 뉴 스페이스 시대의 전초기지로 우뚝 서게 됐다”며 “제2우주센터 고흥 유치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새벽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관계자들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해서는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버금가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과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부, 우주항공청,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기업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불철 속에서 우주산업 발전을 응원해준 고흥군민들에게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분실공고

○ 종 류 : 임대차 계약서 ○ 발 행 인 : 한국건설 (주)
○ 분양물건 : 광주광역시 관산구 해남동 506-3
수원한국아파트(유대동102동 802호)
○ 분 실 일 : 2025년 12월경
○ 성 명 : 조성수 ○ 연락처 : 010-8771-9600
2025년 11월 28일
공고인 조성수

사원모집

참신하고 유능한 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 직종 : 양돈관리
- 자격 : 내국인(연령제한없음)
- 인원 : 1명
- 모집기간 : 25년 11월 26일 ~ 29일까지
- 연락처 : 061-535-0864
전남 해남군 북평면 백도로219-60
황도농장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반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에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